



월  
간

# RI NEWS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1997 제2호

1997년 1월호 창간호 발행인:고창순 편집: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 전화:02)566-1092(대) FAX:02)566-1094 인쇄:성문사 비매품

국내원자력계

## 대만 방사성폐기물의 북한내 이전 저지 방안 모색

### 국내 원자력계 협의회 개최

국내 원자력계는 최근 대만이 자국의 원전에서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을 북한에 이전 처리 하려는 계획이 국제 관계상 전례가 없고 외국 방사성 폐기물이 한반도에 반입되는 경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97.1.27(월)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만 방사성폐기물이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과학기술처 원자력 실장 주관하에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원자력법학회등 원자력 학계는 물론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전력원자력환경기술원등 원자력 연구계 및 산업계 대표 9개 기관이 참석하여 북한으로의 저준위 폐기물 이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원자력학회, 산업계는 물론 IAEA등 국제 원자력관련기구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여 북한으로의 방사성폐기물 이전 저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원자력계는 대만이 방사성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한반도가 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변

하게 될 것등을 우려하고 대만의 방사성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국내 원자력계 입장을 정리하여 주요국가 및 국제원자력관련기구에 전달기로 했다.

### 대만 방사성폐기물의 북한 이전추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계의 입장

1. 우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국내 원자력시설을 세계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어떠한 방사성폐기물도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한반도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처분장화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3. 우리는 대만이 방사성폐기물을 자국내에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북한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기술 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려는 행위에 반대하며, 대만과 맺은 방사성폐기물 이전 처분 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전반에 관한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 한다.